

2023학년도 제1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 결과

| | | |
|----------------|---|---|
| 일시 | 2023. 7. 13.(목) 14:00 ~ 14:49 | |
| 장소 | 대학본부 본관 612호 중회의실 | |
| 참석 현황 | 재적위원 | 16명 |
| | 참석위원 | 11명 김선아(교무처장), 강상규(인문대 교수대표), 이공희(자연대 교수대표), 권수열(교수회 대표), 노재웅(직장협의회 부회장), 최형숙(직장협의회 총무부장), 윤형식(국공립대학노조 부지부장), 임대호(조교협의회장), 서평일(전국총학생회장), 이효재(전국총학생회 교무부총학생회장), 고정재(동문회 상임부회장) |
| | 불참위원 | 5명 이석호(기획처장), 박강우(사회대 교수대표), 이봉민(교육대 교수대표), 설진아(교수회 대표), 이근우(국공립대학노조 지부장) |
| | 기타참석 | 백승희(교무관리팀장), 박우정(기획팀장), 정서진(교무관리주무관), 장혜진(기획주무관) |
| 심의안건 | 1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안) |
| | 2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학생 입학정원 조정 및 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 | 3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
| 안건 심의 결과 | <p>(심의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안) ☞ (의장) 권수열, (부의장) 노재웅 선출</p> <p>(심의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학생 입학정원 조정 및 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원안 가결</p> <p>(심의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 원안 가결</p> | |

2023학년도 제1회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 회의 발언요지

< 1. 성원 보고 >

- 임시의장 김선아** 의장 선출 전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관리팀장** 평의원 16명 중 11명 재직 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2. 개회 선언 >

- 임시의장 김선아** 2023학년도 제1회 대학평의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지난 회 [2022학년도 제4회 대학평의원회 결과 보고] >

- 임시의장 김선아** 전차 회의 결과 보고 부탁드립니다.
- 교무관리팀장** 2022학년도 제4회 대학평의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함
- 임시의장 김선아** 전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의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 평 의 원 일동** 예.
- 임시의장 김선아**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본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안건 상정 및 심의 >

안건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안)

- 임시의장 김선아** 제1호 안건은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안)입니다. 교무처 교무과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관리팀장** 제1호 안건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안)을 보고함
- 임시의장 김선아** 의장 후보자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강상규 평의원** 권수열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항상 일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느껴왔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앞으로도 잘 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고정재 평의원** 동의합니다.
- 임시의장 김선아** 그러면 모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평 의 원 일동** 동의함

- 임시의장 김선아** 그러면 권수열 교수님께서 의장직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의장도 선출해야 하는데 부의장 선출은 의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 의 장 권수열**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형숙 평의원** 노재웅 평의원을 추천합니다.
- 김선아 평의원** 재청합니다.
- 의 장 권수열**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 평 의 원 일동** 예.
- 의 장 권수열** 그러면 모든 분이 찬성해 주셔서 노재웅 평의원을 대학평의원회 부의장으로 선출합니다.

안건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중 학생 입학정원 조정 및 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의 장 권수열** 제2호 안건은 교무과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교무관리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교무관리팀장** ‘학생 입학정원 조정 및 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에 관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을 설명
- 의 장 권수열** 대학원 이러닝학과가 있는데, 요즘은 이러닝이라는 용어보다는 에듀테크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에듀테크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속 내용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학과는 그간 3, 4학년으로만 운영해왔는데 이번에 1, 2학년을 신설해서 1학년 신입생 정원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우리 학교 총 정원의 변경 없이 다른 학과의 정원들을 조정해서 사회복지학과에 정원을 배정하는 안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형식 평의원** 시대에 맞게 학과 명칭을 바꾸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다음에 또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다시 학과 이름을 또 바꾸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김선아 평의원** 일반대학에서는 조금 더 학과 명칭을 유연하게 많이 바꾸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일반대학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학과 명칭 변경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학과 명칭을 좀 더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들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우려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생각하면 변화가 좀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 장 권수열 몇 년 전에 학과 명칭을 바꿨었지요. 그 당시에 학교 차원에서 학과 명칭을 바꿔서 학생들을 더 많이 우리가 모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보자고 해서 아마 몇 군데, 그 당시 제가 속한 학과도 환경보건학과에서 보건환경학과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 이후로 3년 정도 지났는데 저희는 잘 바꾼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모집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선아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일반대학에서는 굉장히 자주 바꾸는 편인데 우리 학교는 학과 명칭을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렇게 자주 바꾸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워낙 요즘 사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런 시류에 맞춰서 바꾸자는 의견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는 그렇게 자주 바꾸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좀 바꿔야 할 것들은 학과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고정재 평의원 무역학과의 굉장히 오래된 관행처럼 써오고 있는 용어인데 최근에는 국제통상이라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이것에 대한 검토라든가 학과의 의견은 따로 없었는지요.

○김선아 평의원 그런 부분은 지금 무역학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과도 역시 학과 명칭에 대해서는 학문의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무역학과에서도 글로벌통상학과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실은 무역학과를 대체할 만한 명칭, 그리고 중복성 부분까지도 고려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정재 평의원 이러닝학과의 시대에 흐름에 맞게 적합한 명칭으로 바뀌었듯이 학부에서도 시대에 맞는 조류를 따라가는 명칭이 신입생 모집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김선아 평의원 맞습니다. 학교에서는 매년 저희가 학과 자체적으로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 주시길 요청하고 있고요. 학과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학과 명칭을 변경코자 할 때는 학교에 매년 요청하는 과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학과 명칭이 변경될지는 봐야 하겠지요.

○의 장 권수열 그러면 안건 2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신지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평 의 원 일동 예.

○의 장 권수열 그럼 찬성해 주신 것으로 해서 심의 안건 2호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안건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중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 의 장 권수열 제3호 안건은 기획평가과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팀 장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등에 관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을 설명
- 의 장 권수열 감사합니다. 우선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가 학칙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지요?
- 기 획 팀 장 법령이 개정되고 2021년에 학칙에 들어왔습니다.
- 의 장 권수열 그동안의 운영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경과사항을 조금만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기 획 팀 장 처음에 방송대법을 만들 때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했던 목적은 저희 학교가 물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만 외부에 있는 좋은 외부위원들을 모셔서 평생교육을 논의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될 때 우리 학교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을 하고자 법령을 개정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1년 7월 13일에 저희 학칙을 처음 개정해서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를 학칙에 넣었고요. 그때도 저희가 외부위원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본교와 연결되다 보니까 내부의 심의를 받으면서 내부의 발전계획을 외부위원한테 하는 것이 제한이 있다고 해서 2021년 11월 5일에 저희가 또 관련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제안하고 있는 사항으로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 그 이후 2022년에 총 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6명으로 구성해서 처음에 설립할 때 회의를 한번 열었고요. 작년 3월 이후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구성도 저희는 외부 전문가를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이 깊었고, 고등·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도 실효성 있는 계획이 어렵다고 봐서 그 기본계획도 현재 수립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 그런 와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법에 관련한 위원회라든지 법령

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스며들 수 있도록 외부위원들을 좀 더 많이 구성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평생교육 진흥 방안에 우리 학교의 역할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학칙 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 장 권수열** 고맙습니다. 방송대법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지요? 방송대법을 만들면서 우리 학교가 우리나라 전체 고등평생교육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자는 것을 담고서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의견을 담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실제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단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어서 아마 이런 개정안을 이번에 상정하신 것 같습니다. 논의를 좀 해주시지요. 내용은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은 22쪽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에 보면 발전위원회의 자문 내용 중에서 본교에서 고등·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빼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세우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기타 우리 학교가 고등교육·평생교육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 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만드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자문위원의 수에서 외부위원을 많이 위촉해서 우리가 안에만 있다 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자문을 좀 더 많이 받자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금희 평의원** 시행령 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시행령에 보면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니까 그 업무를 우리 학교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거를 학칙에서, 그다음에 뒤에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학칙에서 내용을 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기 획 팀 장** 저희가 시행령을 확인했을 때 ‘고등·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1항에 따른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 2개의 조항이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법령을 만들 때 확인해 본 결과 이것에 대한 구성이나 운영들도 모두 법령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법에 모든 기본계획이 있다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조항들이 다 빠졌고요. 결과적

으로 저희가 위원회에 많은 외부위원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평생 교육법에 하는 기본계획에 우리 학교의 얘기를 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지자체에 있는 예산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안에서 이 문구를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과 학칙에 위배 되는 사항은 저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평일 평의원 발전위원회 구성된 게 2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6명밖에 없는 이유가 있
었나요?

○기 획 팀 장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성 자체가 2021년 11월, 12월에 수정이 되었고
2022년 초에 구성이 되었는데 그때 위원회의 방향을 설정하기에는 명확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저희 내부에서
4명, 외부에서 2명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학칙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위원회로 좀 더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평일 평의원 외부위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기 획 팀 장 아니요. 지금 그것은 확보되지 않았습시다마는 저희 교수님들 중에서 평생
교육 쪽에 연결된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고요. 그 외로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
연관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재웅 평의원 여기 대학평의원회 오기 전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을 텐데 처음에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했다가 이제 없애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성할 때
외부위원을 안 둘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의무조항으로 3분의 1 이상으로
할 때는 일단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외부전문가를 끌어들이기 때
'구성한다'로 그냥 끝나는 게 좋은지 의문이 좀 들긴 드는데 우리가 지금
까지 하고 자문한 게 아직 뭐 없지요?

○기 획 팀 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안건으로 논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노재웅 평의원 우리 학교에 이것도 있고 아마 운영위원회도 있고,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어디 위원회에서 뭘 해야 하는지 그게 참 헷갈릴 것 같아요.

○**기획팀장** 저희 기획처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역할도 결국은 외부위원들을 중추로 구성해서 학교를 위해서 밖에서 뛰어주시기를 원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학칙 개정이 되면 장기적으로 운영위원회와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와의 정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선아 평의원** 어쨌면 지금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이라는 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이미 교육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대학이 그 계획안에 어떻게 조화롭게 같이 일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우리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규정이 정비되면 사실은 그 역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회가 정말 많지요. 많지만 지금 이 위원회는 자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심의 기능이 없고 자문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발전계획이라는 것을 기획위원회에서도 심의도 하고 여러 단계에서 하게 될 텐데 이와 관련된 것을 외부인이 조금 더 객관적인 눈으로 봐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측면에서 자문을 저희가 좀 더 살려볼 수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처장님이 출장 중이시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권수열**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은 외부의 의견들, 외부의 자문, 외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외부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됐기도 하고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들이 난립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서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정재 평의원**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의 역할 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빠진다면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교발전위원회라든가 그것과 차이점이 있나요?

○**기획팀장** 저희가 학칙상에서 발전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들은 다 내부적인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우리 학교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심의기구가 될 수는 없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적인 위원들이 오시고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분들을 저희가 모신다면

우리 학교의 발전 방향과 전체적인 국가 차원의 것을 같이 융합하는 등의 부분을 대변해 주실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자문과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학교 발전계획을 위한 내부 심의기구도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재 평의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 빠져버리고 대학발전계획만 수립한다면 교수회에서 하는 역할과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구별되거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외부위원 유무만 다른 건가요?

○**기 획 팀 장** 그것보다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와 기획위원회에 고등·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자문이나 심의 기능이 들어간 사항은 저희가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만들면서 그것들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없던 사항이고요. 이것들을 외부에서 자문을 받는 사항이라서 기본계획을 자문받는데 그대로 통과할 수 없으니 내부 심의기구를 거쳐 자문과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 기존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고등·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게 없었을 때는 이 내용 자체가 여기서 거론되지 않았던 사항들입니다.

○**김선아 평의원** 이 조항을 봐서는 교수회에서 우리 학교의 발전계획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이미 교육부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 위원회가 할 역할은 교육부에서 수립한 그 계획(안)을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의 발전 방향과 맞춰서 정부 계획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부응해 갈 것인가 이것을 같이 논의하는 단위가 이 단위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회 등은 보통 내부적으로 발전계획들을 얘기하는 단위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게 되는 역할 자체가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에는 외부인이 많을 것이고 역할 자체도 국가의 전체적인 방향과 우리 학교의 가야 할 방향, 우리 학교의 비전, 이것을 어떻게 잘 맞춰 나갈지를 객관적으로 자문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주요 기능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정재 평의원** 대학발전계획 연 단위계획인가요, 아니면 중장기 계획인가요?

○**기 획 팀 장** 심의를 올릴 때는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평일 평의원** 그러면 이런 진행을 할 때 33조 7항에 보면 ‘자문을 받아 위원장은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외부자문을 받았던 것이라면 내부에서 한 번 더 검토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기 획 팀 장** 기본계획 수립이니까 수립은 기본계획이라서 이것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나머지는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자문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자문받아서 내부적으로 발전 계획들을 수립했을 때는 학칙에 근거한 내부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의 장 권수열** 7항은 앞에서 없었기 때문에 문구를 삭제하는 의미입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의견들 더 있으면 주시고요. 위원회는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되면 좋지만 만들어 놓고 이름만 있는 위원회는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고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의원님들은 특별한 의견 없어요?

○**강상규 평의원**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근데 우리 조직이 일종의 씨줄·날줄로 해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몇 개의 위원회에 속해 있는지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역할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물론 명료하게 딱딱 선을 긋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 구성원이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런 위원회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이 잘 모른다면 자칫 위원회가 가진 권한이 남용될 우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실 언뜻 보면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위원회와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큰 그림 속에서 각각의 위원회의 역할들을 좀 더 명료하게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 장 권수열**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노재웅 평의원**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면 다시 규정을 또 개정하는지, 지금 규정은 없지요?

○**기 획 팀 장** 아직 그것까지는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위원회 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권수열**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에서 나름 위원회에 대해서 계획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동의 해 주시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평 의 원 일동** 예.

○**의 장 권수열** 전원이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 3건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 6. 마무리 말씀 >

○**의장 권수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 의 원 일동** 예.

< 7. 폐회 선언 >

○**의 장 권수열** 2023학년도 제1회 대학평의원회를 마칩니다. 끝.